

# 국문 아래 민족단결의 노래소리 우렁차다

## —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 민족단결진보사업 깊이있게 전개



목숨이 우거진 초여름, 민족단결의 꽃들이 집안시 압록강변에서 활짝 피어나고 있다. 국경선을 따라 걷노라면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의 이민관리경찰들과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25개 민족 군중들이 손에 손잡고 어깨 나란히 석류씨마냥 서로 꼭 껴안고 공동으로 그린 새시대 집안시 민족단결의 장엄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 상하는 당중앙과 성, 시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견결히 락착하고 일심동체로 협력하여 상호 교류, 상호 의존의 진실관계를 형성하며 다원일체, 영육을 함께하는 공동체의를 공고히 하고 주둔지의 소수민족 관련 단위, 군중들과 함께 국가 정치안전, 국문안전을 수호함으로써 당원과 경찰 및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단결진보하는 참신한 국면을 구축하였다.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당위는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사업의 주선으로 민족단결사업을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당위의 중요한 의사업정에 포함시키고 주요 지도자를 조장으로, 분관 지도자를 부조장으로, 관련 부문과 기층단위의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건설사업지도소조를 설립하여 조직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업 책임을 락착하며 주요 지도자가 직접 틀어쥐고 분관 지도자가 중점적으로 틀어쥐며 부문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틀어쥐는 광호한 사업태세를

형성했다. 민족리론 정책범규와 새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당위, 당지부, 정치학습의 중요내용에 포함시켜 학습 배치를 총괄하고 정성껏 조직, 실시했다. '3가지 회의, 1가지 수업', '주제당일' 등 활동과 결부시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다지기' 전문주제 학습토론회와 민족정책 강연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민족단결진보의 사상적 토대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고 민족단결진보의 광호한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켰다.

국문의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발휘

시키고 국문 관광지의 우세를 리용하여 민족단결을 흥색국문선전교육진지에 융합시키고 '항미원조 제 1도' 집안철도통상구에 1,800여평방미터에 달하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다지기' 교육실천기지를 건설하여 흥색교육, 민족단결교육과 국방교육을 유기적으로 융합시켰다. 20명의 교육골간을 선발하여 '홍색 교량' (红桥)의 무강연대를 설립하고 루계로 620여회에 달하는 의무 강연을 전개했으며 관광객 40만명을 접대하여 민족의 공동한 정신가원을 구축했다.

'7가지 진입'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당의 민족리론, 정책, 법률범규가 기

관, 기업, 향진, 사회구역, 교정, 국문에 진입하도록 전력으로 추진했다. 집안시 제 1소학교, 조선족학교, 량수향민속원 등 소수민족 단위, 단체와 연합하여 선후로 '민족단결진보의 달', '민족리론 교정에 진입', '이중언어 학습 경찰 주둔지 진입' 등 정책 선전과 법률보급 활동을 56회 전개했다.

압록강에국주의교양기지에서 청소년 민족단결교육을 84회 전개했는데 연인수로 5,000여명이 참가하여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정확한 민족관과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했다. '경민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여러 민족간의 감정교류를 적극 증진하며 '소강남문화예술제'라는 경찰 주둔지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여 종이오리기 전시회, 서화 전시회, 촬영 전시회 등 전시회를 8차례 개최했으며 시당위 통전부와 협동하고 공청단시위, 조선족문화관과 연합하여 일련의 주제 활동을 개최하여 여러 민족 교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가지 인정'을 부단히 증강시켰다.

지속적으로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 발전시키고 민족단결진보와 '방관복(放管服)' 개혁의 깊은 융합을 심화하며 소수민족의 특수성, 차이성에 따라 이민관리 정무봉사를 개선, 최적화하고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과 중심주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다. 집안 변경경제합작구와 중조호시무역구 등 플랫폼에 의탁하여 중조 변경의 무역왕래를 촉진했다.

'새시대 당정군경민 협력 강변고변 기제' (新时代党政军警民合力强边固边机制)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기층 조직과 집안조선족학교, 주둔지 해방군당지부, 운봉발전소, 변경소수민족촌락과 연합하여 통상구, 변경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다민족 변경의 안정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사업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했다.

당의 민족정책과 국방정책을 일상적으로 선전하고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한 신문보도 쾌속반응 기제와 모순해소 기제, 전면검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였으며 민족 요소와 관련된 여론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이 일상적인 생산생활과 사업학습에서 서로 리해하고 서로 포용하도록 교육, 인도하여 당원, 경찰 및 여러 민족 인민대중들간에 감정이 서로 융합되고 마음이 서로 통하며 서로 도와주는 광호한 사회적 환경을 형성했다.

/ 정현란기자. 맹효령 (孟晓玲)

## 길림성 퇴직수속 절차 더욱 간편해졌다

지난 6월 30일, 길림성인력자원 및사회보장청은 고용단위와 군중들의 퇴직 수요를 만족시키고 기업과 군중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성 퇴직 '한업무(一件事)' 처리 봉사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국무원의 사업 배치와 성정부의 사업 요구에 따라 관련 부문과 협동하여 '집성 처리, 1회성 처리, 고효율 처리' (集成办、一次办、高效办)의 목표를 둘러싸고 업무전담반을 설립하고 업무 방안을 인쇄, 발부했으며 임무 분공과 시간을 명확히 작성했다. 퇴직 '한업무' 수요에 따라 사항 온라인 처리 절차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보완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에는 <길림성 고효율 퇴직 '한업무' 사업 실시 방안>을 정식으로 발부했다. <방안>은 규범화, 정확화, 편리화 봉사를 명확히 하고 다사집성(多事集成), 1회 완결(一次办结), 쾌속간편처리(极速简办), 스마트편리(智慧便捷)의 '한업무' 처리 모식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6월 30일부터 전 성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

자 대우 수령 자격 확인, 기본양로 보험 납부 시간 인증, 특수 직종 조기퇴직 심사비준, 질병 및 비공상으로 인한 로동능력 완전 상실 조기퇴직 심사비준, 신규 퇴직자 양로보험 대우 수령 심사비준, 기본의료보험 납부 시간 인증, 주택공적금 인출, 도시 독신자녀 부모에 대한 장려금, 호적 정보 확인 등 업무에 대해 집성 처리 및 1회성 신청을 진행하여 업무 처리를 1회방문, '일방통판'을 실현한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관련 인원의 소개에 따르면 퇴직 '한업무' 인터넷 처리를 실시한 후 절차가 10개에서 1개로, 방문 회수는 5회에서 1회로, 관련 자료는 13부에서 0부로, 처리 시간은 10일에서 가장 빠르면 1일로 줄어들어 처리 시간과 처리 원가를 대폭 줄였다.

다음 단계에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퇴직 '한업무' 인터넷 처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관사업단위 인원의 퇴직 자격 확인 등 업무도 '한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정무봉사의 면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단위 및 근로자의 업무 처리 체험감과 획득감을 제고하게 된다.

/ 길림일보

## 장춘 지하철 7월 1일부터 막차 시간 연장

1일, 장춘시궈도교통그룹에 따르면 운영 봉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광범한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 위해 7월 1일부터 궈도교통의 막차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첫 발차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궈도교통 1, 2, 4, 6호선 쌍방향 막차의 발차시간은 여름 시즌 22:15에서 22:35로, 겨울 시즌 21:45에서 22:05로 연장한다.

3호선 쌍방향 막차의 발차시간은 여름 시즌 22:15에서 22:30으로, 겨울 시즌 21:45에서 22:00으로

연장한다.

8호선 막차 발차시간의 경우 북환성로→광통로 방향은 여름 시즌 22:15에서 22:35로, 겨울 시즌 21:45에서 22:05로 연장한다.

광통로→북환성로 방향은 여름 시즌 21:40에서 22:00으로, 겨울 시즌 21:10에서 21:30으로 연장한다.

'장춘 E 출행' (长春E出行) 앱과 '장춘궈도교통그룹 (长春轨道交通集团)' 공식계정을 통해 각 노선의 발차 및 막차 시간에 대해 더 상세히 료해할 수 있다. / 정현란기자

## 북산가두

### 노래와 춤으로 당의 생일 열렬히 경축

1일, '석류꽃이 피고 한마음으로 당을 위하자'를 주제로 하는 중국공산당 창건 103돐 경축 활동이 연길시 북산가두 단산광장에서 열렸다. 북산가두당위 성원, 기관간부, 사회구역 사업일군, 여러 민족 당원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했다.

활동은 단산사회구역 로년대학의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대합창으로 막을 열었다. 활동 첫 순서로 입당 년한이 50년 이상인 로당원 대표들에게 기념장을 수여하고 2024년 상반기의 새로운 예비당원들에게 중국공산당 휘장을 달아 주었다. 로당원과 예비당원들은 당기 앞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조국과 앞날을 위해 공헌할 것을 굳게 맹세했다. 여러 민족 당원간부와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의 분투 과정과 휘황한 업적을 열정적으로 구가하고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중국공산당 창건 103돐에 바쳤다.

독창 <이 노래 당에 불려드리네>.

중창 <홍매송>, 무용 <잊을 수 없는 그날> 등 9개 종목은 중국공산당의 파란만장한 100여년의 역사를 되새기도록 했다.

이어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자'는 주제로 펼쳐진 지식경연은 분위기가 열렬했고 현장 참여도가 높았다. 당의 이론과 민족단결 지식 등 문답을 통해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에 대한 광범한 간부와 대중들의 인식을 심화했다. 이날 활동은 <조국을 노래하자>는 우렁찬 노래로 막을 내렸다.

북산가두당위 부서기이며 정법위원인 정금화는 "금후 북산가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증강하고 당규를 학습과 교육을 깊이 전개하며 광범한 당원간부들의 당성 수양을 한층 더 강화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열의를 북돋우어 민족단결진보와 매력북산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리성복특약기자

## 장백변경관리대대, 향미원조 로전사 위문

일전, 장백변경관리대대는 중국공산당 창건 103돐을 맞으며 향미원조에 참가했던 로전사 리재우의 집을 방문해 문안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했다.

장백변경관리대대의 경찰들은 우선 리재우의 신체 상황과 가정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문의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중국공산당 창건 103돐에 바쳤다.

리재우는 장백변경관리대대의 위문에 고마움을 표하고 나서 전쟁에서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던 경력을 회고하고 영예훈장을 경찰들에게 보이기도 했다. 리재우는 "향

미원조가 끝나자 곧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당과 정부에서 보살펴주어 이처럼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행복하게 만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장백변경관리대대의 관련 책임자는 향미원조에 참가했던 로전사들은 나라의 공훈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금후 장백변경관리대대는 그들의 신체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원수 (张元首), 최장남



장춘 58개 도로경무소 건설

## 장춘시공안국, 사회면 협동관리통제의 새 기제 전면 추진

일전, 장춘시공안국은 경찰 직종의 협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동 순방을 돌출하게 하기 위해 실제와 결부하여 교통경찰, 순라경찰 등 부문에 대한 기구 통합, 업무 융합을 적극 추진, 장춘시에 58개 도로경무소를 건설하여 사회면 협동관리통제의 새로운 기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길림성공안청 부청장이며 장춘시 부서장이며 장춘시공안국 국장인 림해봉은 58개 도로경무소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전 시 범위내에서 사회면 협동관리통제의 새로운 기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길림성공안청당위 '1, 2, 3, 4' 현대화 발전 전략 포치를 관철하고 '주동경무, 예방경무, 융합경무, 협동경무'를 전면 심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며 교통관리, 치안방제, 응급처리, 편민봉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실천 수요일뿐더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성도'를 심층 건설하고 인민대중들의 안정감, 행복감, 획득감을 부단히 증강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고 전투하기 위해 건설한다' (建为用、用为战)는 원칙에 따라 실천과 훈련을 강화하고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찰대오(全科警队)를 건설하여 교통관리

가 우수하고 순찰방제가 강하며 응급속도가 빠르고 군중 봉사가 실속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탁월한 추구, 정품 수립'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고 근무 모식을 최적

/ 길림일보